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 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5년 표어 §

그리스도인 복음으로 사는 사람
(마 5:3-12, 창12:1-3)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가롯 유다의 비극

(마 27:1-10)

본문에는 비극적인 최후를 마친 가롯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는 3년 동안 동거동락 하던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배신자입니다. 비록 은 30이란 적지 않은 돈을 챙겼지만 결국 그 돈을 쓰지도 못한채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며 죽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을 맡을 만큼 예수님께 신뢰 받는 사람이었습니다(6절). 그런 유다가 어쩌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비극적인 죽음으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까?

1. 그는 자신의 야망을 고쳐 주님의 비전에 맞추는데 실패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기 위해 오신 정치적 리더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를 가운데 누가 더 큰지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예수님이 자신의 그런 야망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게 됩니다.

2. 돈에 대한 욕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이틀 전에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눈물과 함께 자기의 긴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것을 보고 가롯 유다는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라고 말합니다. 사실이 말은 일리 있고 논리가 타당한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유다가 그 말을 한 것은 향유를 팔아 돈궤에 넣으면 그것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요 12:6).

3. 그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요 13:2).

사탄은 단계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우리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당연히 유혹도 받고 나쁜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유혹과 시험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위험한 경계에서 머뭇거리다 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원수 마귀의 밥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롯 유다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돈을 우리가 지배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의 유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 올 때마다 깨어 기도함으로 오직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케 되어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The Tragedy of Iscariot Judah

(Matt. 27:1-10)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Judah Iscariot who finished his tragedy appears in the text. He was a betrayer who sold Jesus with whom he lived and enjoyed for three years for the amounts of the thirty silver coins. He took his secret payment of thirty silver coins which was not a little amount of money, but in the end he did not use it and died by regrets for his mistakes.

Judah Iscariot who took care of public finance in the community of his disciples was a reliable man of Jesus (v. 6). Why did Judah like this betray Jesus and end his life with tragic death?

1. He changed his own great ambition into Jesus' vision but failed

The main purpose of which Jesus came to the world was to accomplish the saving of all human beings through the death on the cross. But Jesus' disciples did not realize his purpose. However, they thought that Jesus came as a political leader in order to give independence to Israel.

Therefore, they had a pressing matter among them about who would be bigger than others and who would get better position than others. Iscariot also had the same ambition. Accordingly, as the time passes, they realized that Jesus was not the person who could not fill out their ambition, and finally he sold Jesus as the amount of thirty silver coins and handed him over.

2. He could not throw off his greed for money

Two days before Jesus carried a cross, a woman came to Jesus with an alabaster jar of very expensive perfume, which she poured on His head, and she untied her hair, and washed His feet with her hai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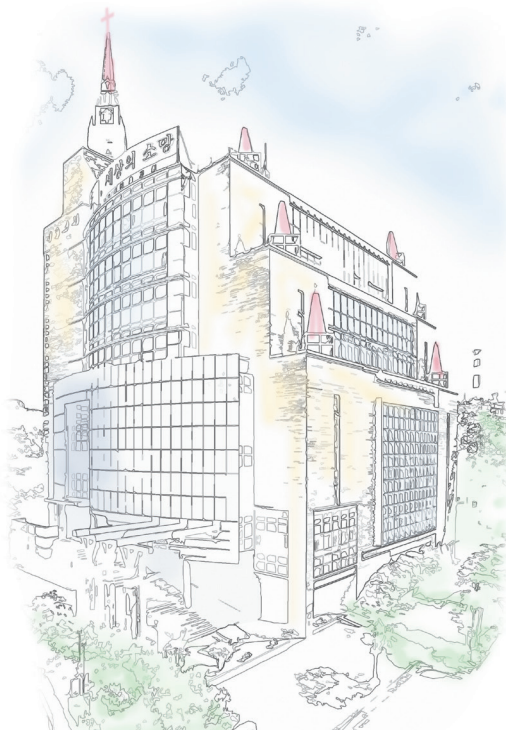
When Judah Iscariot looked at this situation, he said that if she would sell perfume and give it to the poor, how wonderful was it? In fact, it might be heard there was truth and logic in what he said. Nevertheless, what he said was that if he sold the perfume and put it in the money bag, he took it, because he was a thief as a keeper of it (John 12:6).

3. He did not reject the Satan's temptation

“The evening meal was being served, and the devil already prompted Judah Iscariot, son of Simon” (John 13:2). The Satan approaches us in stages. The reformer of religion, Martin Luther said, “We have no other choice in which birds fly over us, but we never make birds build a nest over us.” In the corrupt world, we who live our depraved nature are naturally tempted to think bad things. Nevertheless, we must pray and beat off the temptation and trial. If we do not pay attention to such a thing and hesitate in a dangerous boundary, we become a food of enemy that is ready to swallow someone like a lion.

My beloved Christians,

We read about Judah Iscariot self-centeredness. We are not controlled by the mind loving money, but by controlling the money that was given by the Lord. We must only become God's people to use it in order to glorify God. Moreover, whenever the Satan's temptation comes to our mind, we must be awake and pray to God. By being full of Holy Spirit's mind and thought,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God's people having a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제38학기 서울성경대학 ·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9월 7일(월) ~ 11월 15일(주일) 10주간

성경 66권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경공부를 통하여 말씀에 든든한 기반을 둔 신앙을 확립하고, 말씀이 왕성하여, 내적으로 복음적인 신앙을 견지하고, 외적으로는 복음전파가 힘을 얻어, 서울교회 부흥을 위한 기를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제 38학기 서울성경대학과 하반기 열린프로그램이 9월 7일(월) ~ 11월 15일(주일) (10주간) 다음과 같이 열린다. 각 과목당 소정의 수강료가 있으며 성도들의 많은 참석 바란다.

강좌	요일 및 시간	담당	장소	
성경과목 (10주)	레위기	목, 저녁 7:00~8:00	서명철 목사	602호
	역대기(구약의과노라마)	금, 오전 6:10~7:00	장석남 목사	603호
성경통독반	목, 오전 10:30~12:00	서준권 목사	501호	
선교대학	월, 저녁 7:00~8:30	장석남 목사	602호	
살롬 경로대학	목, 오전 10:00~오후 1:30	서명철 목사	101호	
교사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6호	
교구일꾼 양성반	주일, 오후 3:30~4:20	교역자 전체	607호	
전도학교(12주)	주일, 오후 3:10~4:30(9/6~11/22)	배경애 전도사	506호	

서울음악교실	주일, 오후 1:30~3:00	박정선 장로	601호
결혼예비학교(5주)	주일, 오후 3:30~4:30 (9/20~10/18)	서준권 목사	609호
이·미용학교	월, 오전 09:30~13:00	배경애전도사	701호
수화교실 초급반(16주) 중급반(16주)	주일, 오후 1:00~1:50 (9/6~12/13)	임규현 목사	609호(초급) 603호(중급)
어머니 힐링스쿨	화, 오전 10:00~12:00	양세라 목사	601호
영성 케어부	화, 오후 1:30~3:30	양세라 목사	601호
영유아 어머니 하트 스쿨	목, 오전 10:30~12:30	구분혜 전도사	706호
비블리오 바이블 스쿨	토, 오전 10:00~12:00(9/5~11/7)	양세라 목사	702호

이웃과 함께 하는 2015 사랑의 바자



예완식 집사 (바자위원회 차장)

바자위원회(위원장:홍성주 장로)는 다음달 9월 17일, 18일 양일간 교회 1층~9층, 앞마당 한티공원 일대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2015 사랑의 바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바자본부에서는 모든 교구와 다락방 구성원이 빠짐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축제의 바자를 준비하고 있다.

이웃과 함께하는 2015 사랑의 바자는 첫째, 불우 이웃 및 탈북 난민 돕기. 둘째, 생명의 우물파기. 셋째, 농어촌교회 및 해외 선교지원을 목표로 바자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농어촌 교회 참여 및 교회주변 65세 이상 노인 무료 식사, 이·미용, 의료

한편 이번 사랑의 바자는 사랑이 충만하고 교제가 풍성한 서울교회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웃주민과 이웃 상인들을 참여 시키어 우리교회가 돕고 있는 농어촌 100교회를 중 참여를 원하는 일부 교회도 참

여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와 달리 바자본연으로 돌아가자는 취지로 교회 주변의 독거노인 및 65세이상 노인분들에게는 무료로 점심식사, 이·미용, 의료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파키스탄, 몽골, 터키, 카자흐스탄의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

더불어 재미있고 볼거리 있는 바자를 위하여 특색 코너를 만들 예정인데 영어 예배부 및 의정부 열방교회의 도움을 받아 파키스탄, 몽골, 터키, 카자흐스탄 인들이 자국 고유의 복장과 음식, 풍물로 바자 분위기를 고취시킬 예정이다.

바자 당일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가 어려운 신성도님들은 사랑 나눔 운동의 일환인 기부천사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느끼며 체험해보기를 소원한다. 이번 이웃과 함께하는 2015 사랑의 바자는 그 어느 때 보다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이 서울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에 크신 은혜가 충만하게 내려주시리라 믿으며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목사님, 궁금해요!

이중은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181)

(문 181)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 반역한 것은 로마서9:17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고 하셨으니 그렇다면 바로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답)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루면서 선민과 선택받지 못한 이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는 원리를 설명하면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13) 하시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지 원한다거나 달음박질한다 해서 긍휼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15-16). 그리고 출9:16 말씀을 인용하면서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바로)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함이라'고 하셨습니다(17). 이처럼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완악하게도 하십니다(18).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고 물을 수 있겠으나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19-20)고 바울은 책망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1) 우리는 한정된 피조물이라는 것과 (2) 하나님은 그 그릇을 통해 자기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멸하기로 준비된 그릇과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을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피조물된 그릇들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항의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30절 -31절에서 이 문제의 결론을 내리면서 '그러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라고 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바로에 대한 문제도 풀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세의 호소에 바로가 부정적 응답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지하신 일이었습니다.(출3:19)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심으로 백성을 이끌고 광야로 가고자하는 모세의 소원이 거절된 것입니다.(출4:21). 바로를 강박케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후 애굽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려 하신 것이었습니다. 9번이나 바로가 약속을 번복한 후 이스라엘 백성이 떠난 길이므로 그들이 돌아와야 할 의무는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강박한 마음으로 첫 번째 거절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하시지는 않았습니까.(출5:2) 그가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거절한 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강박케 하사 거의 이성을 잃은 자처럼 하게 하신 것입니다(7:3, 13:22, 8:19).

(다음 주 계속)

장학금을 받으며

내가 바로 통일리더!



조영금 성도 (디아스포라부)

안녕하세요. 저는 단국대학교 회계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인 디아스포라부 장학생 조영금입니다. 친구의 전도로 서울교회에 다닌 지 2년째 되었고, 항상 디아스포라부의 장학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그리고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정성이 담긴 수많은 헌금으로 이루어진 장학금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공부하고, 교회 성도님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앞으로는 내가 장학금에 조금이나마 보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얼마 전 (7.3~7.25) 북한인권시민연합과 KASM(Korean American Sharing Movement)이 주최한 워싱턴리더십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디아

스포라부의 집사님, 권사님들의 기도 속에 미국 워싱턴 D.C.와 뉴욕에 다녀왔습니다. 탈북 대학생 6명, 남한대학생 3명이 참가하였고 3주간의 여정동안 유엔, 주미한국대사관, 월드뱅크, IMF, 미국국회의사당, NED, 우드로 윌슨센터, VOA, 휴먼라이츠 워치 등 많은 국제기구들을 방문하고, 북한의 정치,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는 여러 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고 왔습니다.

특히 민주주의란 무엇인지, 리더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우고 통일된 한반도에서 민주주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기되는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해서 미국대학생들과 서로의 의견을 주고



받으면서 토론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는 한인 분들을 만나 하루빨리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기도를 매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는 모습에 감동도 받았습니다.

저는 이번 워싱턴리더십프로그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도 경험하고 남한도 경험한 내가 바로 통일리더이고 나도 그들과 발맞춰서 더 열심히 통일이 이루어지는데 한 몫 할 수 있게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서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도 하루 빨리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되는 통일의 그날이 오기를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학금을 받으며

비전을 품고



김준서 성도 (사랑부교사)

장학금을 허락하신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학생이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을 항상 품고 기도하며 열심히 공부하여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지금은 장학금을 통하여 섬김을 받지만 나중에 많은 세월이 흘러 사회적으로 베풀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을 때 또한 기도와 헌금으로 섬길 수 있는 자로 성장

하길 기도합니다.

사랑부에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 한 것 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장학금이라는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편론 습관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하면서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다시한번 주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며 이 더위보다 더 뜨겁던 주님을 향한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더욱 열심히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교회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으로서 말씀 안에 자

라나 이 나라와 교회를 이끄는 기둥이 되는 데에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겠습니다. 또한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이루어진 장학금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이 거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장학생으로서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박주원 (초등부)

인도에 가기 전 '인도는 어떤 나라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인도에 가서 어린이 사역을 하는데 과연 서로가 낯설게 대하지 않고 친해질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내 걱정과 다르게 정작 인도현지에 가보니 아이들 눈이 초롱초롱하고 예뻐했습니다. 또 우리가 먼저 인사를 해주면 “나마스카라” 하며 밝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먼저 인사하고 이름도 물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말도 안통하고 모습도 달랐지만 함께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가 준비해간 미니올림픽, 음악수업, 공연, 찬양과 율동 같은 활동을 모두가 즐겁게 따라해

주었습니다.

교회에서 인도에 가기 전에 풍선으로 많은 것(강아지, 칼, 모자, 사과 등)을 만들어 주려고 연습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간단한 칼이나 모자 밖에 못 만들어 준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번 선교에서는 밤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려니 피곤했지만 아이들을 보면 힘이 생기고 즐거웠습니다. 인도 아이들과 거리낌 없이 보면 1주일이 웬지 더 짧은 느낌도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하나님이 인도 어린이들을 구원하시고, 또 인도 어린이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서 우리가 봤던 인도를 하나님 잘 믿는 나라로 변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도 어린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만약 선교에 갈수 있는 기회가 또 있으면 다시 가고 싶습니다.



하반기 다락방 리더 수련회 - 성령충만과 영적 훈련을 강조

하반기 다락방 리더 수련회가 8월 21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본당 2층에서 교구장, 부교구장, 간사, 다락방장, 부다락방장 등 250여 명의 다락방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진행되었다. 찬양과 다락방 사례발표, 다락방 모임시연, 특강, 합심기도, 교구별 모임 및 식탁교제의 순서로

진행된 이 날 수련회에서 박노철 담임목사는 특강을 통하여 "모든 다락방 리더들이 성령충만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잘 훈련되어 앞으로 서울교회의 모든 다락방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격려와 위로가 넘치는 다락방으로 부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특강중인 박노철 담임목사



▲ 7교구 4다락방 모임 시연

▼ 14교구 8다락방 사례를 발표하고 있는 석상화 권사



이웃과 함께 하는 2015 사랑의 바자

동네어른 무료 이미용, 의료봉사 / 농어촌 100교회 특설매장

2015 사랑의 바자(위원장 : 홍성주장로)는 바자기 간중 동네 어르신을 초청하여 이미용 봉사를 하며 건강상태도 체크해 드린다. 또한 우리교회가 돕고 있는 농어촌 100교회의 농특산물의 직거래장터도 마련키로 했다. 태양초 고추, 다양한 꿀, 감자, 단호박, 사과, 해조물등이 출품될 예정이며 사전에 교구, 다락방을 통해 예약을 받기로 했다. 영어예배부의 파키스탄, 몽골, 터키, 카자흐스탄 성도들이 자국 고유의 복장, 음식, 풍물로 글로벌한 바자 분위기를 연출할 예정이다. 이번주 사랑나눔운동은 찬양대원들과 교회 학교 교사와 학생들에게 기증과 기부(약정)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에는 우산, 아동 및 덕다운 의류, 성경책, 덧버선, 피부용팩, 피아노, 중고핸드폰등 기증품과 다수 무명 기부금등이 접수되었다.

사랑나눔 기부(약정)자 명단

(1교구) 조향숙 (4교구) 이영자8, 권혁달, 이수경, 김유

경 (7교구) 서병권 (8교구) 이한룡 (13교구) 한건수, 유안순 (14교구) 송재현, 선순례 (임마누엘찬양대) 류충기, 양경실, 김윤지, 유주일, 유기순, 박춘자, 서명희, 정선경, 유경희, 표정희, 박진경, 서정선, 홍정란, 박세아, 최상아, 김기연, 이민주, 김인영, 장연자, 남지혜, 맹주은, 심화숙, 박길자, 김복희, 이건희, 최아영, 이혜원, 서민애, 송금자, 김건희, 공경택, 김은석, 주영도, 박종훈, 이상윤, 김시찬, 곽아론, 안진혁, 김영희, 은기장, 김규원, 김민철, 이준규, 소훈, 임근수, 김승찬, 윤동선, 우령찬, 장태준, 홍성민, 이태석, 임민섭, 김요한, 신재규, 박상훈, 김승환 (중등부) 강승윤, 이상은, 이민주, 김성환, 천예준, 김태수, 장해라, 김백경, 이서주, 한유리, 이상민, 김혜진, 황채영, 김재용, 이유은, 김재령, 감동헌, 남사라, 정서현, 공지혜, 김은빈, 최윤경, 방미애, 황선경, 송민경, 이창희, 최연경, 감정현, 소준, 김설아, 이영주, 옥유진, 이덕진 (기타) 윤옥경

■ 특별 찬양 ■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영어예배의 찬양을 담당하는 예루살렘찬양대(대장:신현일집사)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심상희권사의 지휘로 "God is our refuge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Holy is the Lord 주님은 거룩하시니", "Holy is He 거룩하신 그"를 찬양하며 피아니스트 이승민집사와 트럼펫에 김기업선생이 함께 연주한다.

다락방 리더훈련 개강

다락방 리더훈련이 8월 26일(수) 수요1부 예배 후 본당에서 개강한다. 다락방 리더들은 전원 참석 바란다. 또한 금주부터 다락방 모임을 갖는다.

장로 수련회 8월 28일 아가페타운

장로수련회를 끝으로 우리교회 2015년 여름 수련회가 막을 내린다. 장로수련회는 아가페타운에서 8월 28일(금)에 열린다.

동 정

- 이종운 원로목사는 24일(월)서울고총동창회 기독교회, 나라와 민족 그리고 영적 각성을 위한 금식기도회 설교를 한다. 8월25일(화) 2015햇볼디이스포라 선교대회 CTS스페셜 녹화인터뷰를 한다. Woody Pak(박원탁교수, 영어예배부, 이미영집사부근. 이종운원로목사들째사위)는 한국 뮤지컬 협회와 중앙일보 공동주최 제9회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올해의 작곡작사상 수상자로 선정 발표 되었다.
- 12교구 이갑진 장로 (대한 축구사랑 나눔재단 이사장) 8.24-29 제 2회 라오스 유소년 축구 페스티벌 주관 및 이재울 선교사와 라오스 기독교인 교육/격려

- 학위 취득: 1교구 오병호 집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피부과학 전공)(4교구 오현상 집사, 김명옥 권사의 아들, 1교구 양준경 장로, 이인숙 권사의 사위)
- 교역자 휴가: 서준권 목사(8.25-27, 10.27-29) 대행 장재원 정대는 전도사 배경에 전도사(8.24-29) 대행 양세라 목사

- 주일식당봉사 : 에스더 전도회(8. 23) 마리아 전도회(8. 30)
- 금주의 식사 제공 : 교회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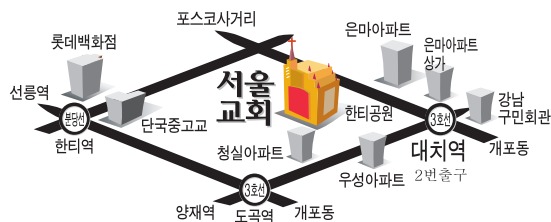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금주에 개강하는 다락방 리더훈련과 다락방 모임을 통하여 사랑과 은혜의 역사가 지속될 수 있도록
2. 사랑나눔운동에 동참하여 이웃과 함께 하는 2015 사랑의 바자가 될 수 있도록
3. 장로 수련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실 수 있도록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수 요 예 배	젊은이 예 배	오후 1시 30분	본 당 II, III 층
	I 부 예 배	오전 11시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